

헌재, 여권에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과거 블로그 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댓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두고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대선 재판관의 남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관의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 등이 있다”면서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단 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확립된 관례다. 거기에 비춰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 보다 원문 전체를 읽어보시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SNS상에 댓글로 이뤄진 대화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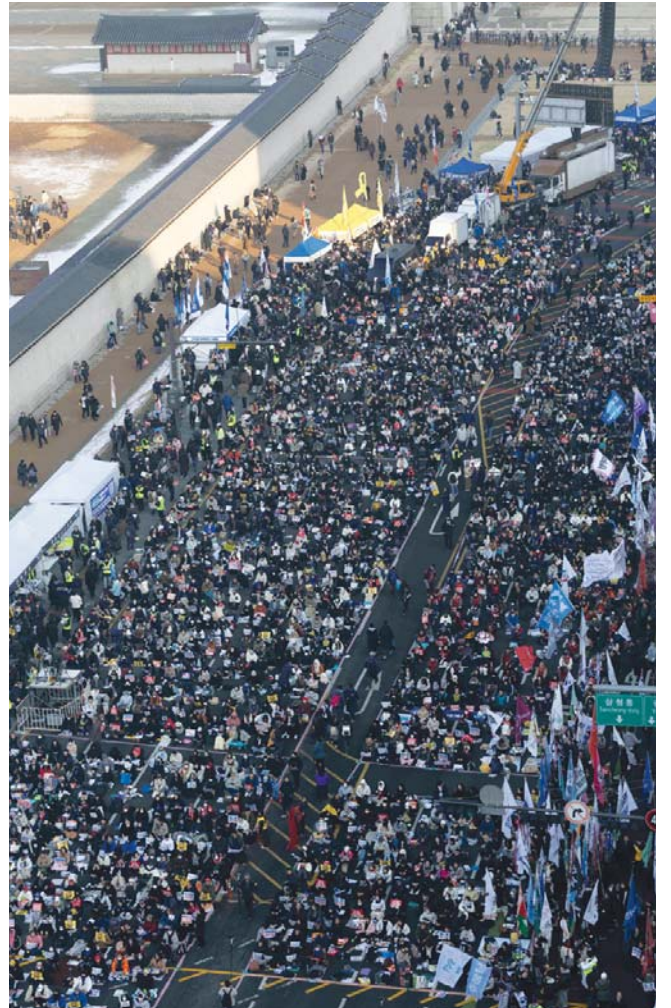
이어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10여년전에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1일 각각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뉴시스

“윤석열 파면하라”… 경북궁 인근에 모인 시민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비상행동 9차 범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심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지역발전 위한 새 방향 모색”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익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별식을 개최했다.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을 넘나들며 주요 핵심 요직을 거친 행정가로서 오랜 기간 봉사해 온 심 전 이사장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후 지난 2023년 8월 1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30여년간의 행정 경험을 살려 공단이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결과 공단은 연간 15만여명의

초대 이사장 역임하면서
경영체계 정상궤도 진입

“그간 쌓아온 경험으로
익산에 큰 기여 희망”



37301), 환경경영(ISO 14001),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 등 총 5개의 주요 인증을 취득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ESG 경영 선도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위원회를 만드는 등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류 공단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전 이사장은 ESG 경영에 전착해 ESG 경영론을 저술하는 등 깊이 있는 지식으로 이를 현장에 접목하여 성과를 이뤘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이다.

심 전 이사장은 “공단이 단기간에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사장을 사임하는 것이 아쉽지만 더 큰 목표인 익산시의 성장 발전에 헌신의 정열을 다 바쳐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고 발전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서해안철도관광시대 추진동력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최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해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서해안철도(군산포선) 건설을 통하여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많은 자연·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차 등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철도 인프라는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며,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된 철도교통망을 서해안까지 확대하여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만큼 가덕도공항·달빛내륙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B/C)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가 전남북 서해안의 해변과 낙조 등 해상을 보고 즐기며 여행할 수 있는 관광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우대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 노선을 따라 새로운 관광루트 및 패키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용우·문정복·박희승·강경숙·이병진·문진석·이원택·신영대·서상석·이재호·김원이 의원이 공동발의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뜻을 모았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1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1일 오전 8시경 정기 예방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초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2만6,500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한민국 최초 농사연금 지급
대한민국 최초 농민훈장 수여

전주농협